

진각종 창종 50년 행사 '다채롭다'

밀각 심인당 신축·서원가 CD 제작등 추진 영묘전·납골당 건립등 사회회향불사 '적극'

진각종은 창종50주년을 맞아 제2창종의 발판을 마련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친다. 진각종은 최근 '진각종 50주년 기념사업단'(총재 락해동원장)을 발족한데 이어 올해를 21세기에 대비한 지표설정의 해로 한다는 방침아래 △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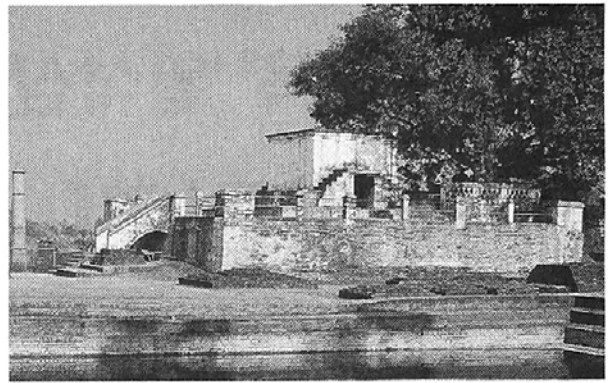
대중사기념사업 △서원가 CD 제작 △50년사 사진집 편찬 △위덕대 개교 △대구 진각회관 완공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조 회당대중사를 기리는 사업으로는 오는 6월 종조탄신지인 율동도 금강원을 진각종

단의 전 종도가 대대적으로 함 배할 예정이며, 최초의 심인당 인 서울 왕십리 밀각심인당 1천여평부지에 2백평 규모의 법 단 신축불사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사업으로는 진각문화회와 회당학회가 중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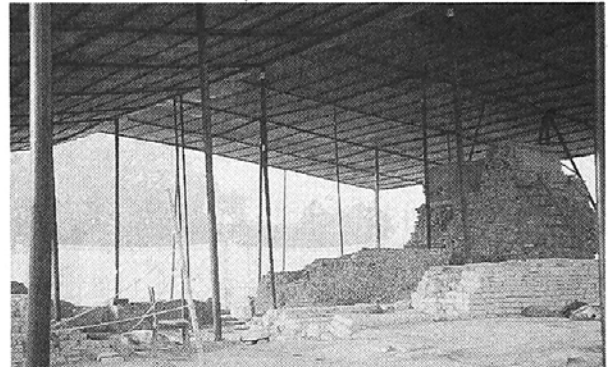
되어 지금까지 발표된 서원가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한뒤 CD로 제작하고 신서원가도 공모할 예정이다. 창종이후 현재까지의 종단사를 더듬어보고 정리해보는 진각종 50년사 사진집을 편찬하고 전시회도 개최한다. 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기념하

는 차원에서 위덕대 개교불사를 내달 22일 전 종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풍단적인 차원에서 상대 하게 개최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단의 종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대구 대법종 진각회관(지하 2층 지상 8층)의 4월 완공을 통해 지역불교를 활성화하고 청정국토가꾸기운동에 버금가는 영묘전이나 납골당건립등의 대 사회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진각음악제등 각종 예술제와 학술제를 개최하여 진기 50년의 의미를 대사회적으로 회향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마야데비사원의 복원공사 이전의 전경과 인편에 보이는 돌기둥이 아소카 대왕 석주.



◇복원공사가 진행중인 마야데비사원내부. 아소카 대왕석주로부터 오른쪽 20m에 위치했다. 중앙 계단으로 들어가 지하 5m 지점이 이면에 밝혀진 부처님 탄생지.

태고종 3부 기관장 선임

72차 총회...올 예산 43억9천만원 확정

총무원장 **혜 초 스님**
총회의장 **금 담 스님**
사정위원장 **인 곡 스님**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총회선거법 전국구규정에 따라 의회직을 상실한 9명의 의원을 명예회복자원에서 총회법을 개정하더라도 4월 정기총회에서 원상회복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앞서 총정유시 이후 사태수습에 들어간 수습대책위(위원장 백우)는 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경과보고했으며, 총회의원들은 이에대해 강한반란을 표시했다. 또한 종단이 몇몇 스님들에 의해 운영돼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성토와 함께 세대교체를 통해 체질을 강화하여 종단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방송가 소식

케이블 가입자 확보 bn 지방 설명회

불교TV는 불자들의 케이블TV 가입을 효과적으로 권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 지역방송국 순회방문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부산을 시작으로 천안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4개 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설명회는 각 지역방송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불교TV 시청자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오락방송 폐해 지적 선우마을 세미나 발표

TV가 학습 사회화 정보제공 문화 오락기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오락프로그램에만 치중해 변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회색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철스님이 환생한 것일까.

'내일 아침 8시에 생이 끝난다면 마지막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겠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철스님(85%)을 꼽았다. 2위는 천주교의 김수환추기경(7%).

"성철스님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월간 '인턴' 대학생 설문

취업정보지 월간 <인턴>이 전국 남녀 대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각종 주요인사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98년 11월 일반한 성철스님은 일반 직후 철두철미한 수행과 누더기 장삼으로 한평생을 산 검소함으로 불교

인문 불교

캄보디아 고사난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캄보디아의 간디, 마하 고사난다(Maha Ghosnanda)가 AFSC에 의해 199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됐다. 고사난다는 캄보디아 불교계 원로, 세계 평화, 정의구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범종교적인 노력을 쏟아왔다. 또한 전쟁으로 황폐해진 캄보디아의 안정을 위해 '마하 고사난다'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비폭력과 자비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인류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고 말했다. 고사난다는 1924년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1938년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9년 캄보디아의 공산계 혁명정권이 들어서자,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가라앉힐 수 있다"며 불교교리지언론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합법적인 비폭력 운동을 전개, 캄보디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 불교

네팔정부 공식발표...발굴공사중 지하방 확인

석가모니는 룸비니에 있는 마야데비사원 지하 내부의 한 벽돌방에서 태어났다고 네팔정부가 지난 4일 공식 선포했다. 마야데비사원 복원공사에 참가한 네팔 및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의해 새롭게 밝혀진 석가모니 탄생지는 마야데비사원 내부의 마야데비상(母像) 바로 앞에 있는 장방형 벽돌 구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부처님 탄생지라고 알려져 있었던 아소카대왕의 석주(石柱)자리에서 오른쪽으로 20m 떨어진 마야데비사원 내부의 지하 5m지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로써 1866년 독일의 고고학자 슈러박사가 아소카석주를 발견하고 현재 그곳이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라는 것이 확인된 지 1백년만에 정확한 부처님 탄생장소가 밝혀진 것이다. 이번 복원공사에 참가했던 일본의 고고학자인 우에시카바사는 "인도 아소카왕이 석가모니의 정확한 탄생장소를 알리기 위해 그곳에 소규모 석주를 세웠는데 마야데비상 밑에서 부서진 석주조각이 발견됐다"며 석가모니 탄생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굴에 참가한 고고학자들은 아소카왕이 서기 250년전 석가모니의 정확한 탄생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웠고 그 뒤 마야데비사원이 건립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야데비사원은 1939년 네팔 정부에서 건립한 것으로 내부에는 마야데비상과 싯타르타상이 모셔져 있으며 룸비니개발위원회에 의해 개발 복원중이다.

"부처님 탄생장소는 룸비니 마야데비사원"

네팔정부 공식발표...발굴공사중 지하방 확인
석가모니는 룸비니에 있는 마야데비사원 지하 내부의 한 벽돌방에서 태어났다고 네팔정부가 지난 4일 공식 선포했다. 마야데비사원 복원공사에 참가한 네팔 및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의해 새롭게 밝혀진 석가모니 탄생지는 마야데비사원 내부의 마야데비상(母像) 바로 앞에 있는 장방형 벽돌 구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부처님 탄생지라고 알려져 있었던 아소카대왕의 석주(石柱)자리에서 오른쪽으로 20m 떨어진 마야데비사원 내부의 지하 5m지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로써 1866년 독일의 고고학자 슈러박사가 아소카석주를 발견하고 현재 그곳이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라는 것이 확인된 지 1백년만에 정확한 부처님 탄생장소가 밝혀진 것이다. 이번 복원공사에 참가했던 일본의 고고학자인 우에시카바사는 "인도 아소카왕이 석가모니의 정확한 탄생장소를 알리기 위해 그곳에 소규모 석주를 세웠는데 마야데비상 밑에서 부서진 석주조각이 발견됐다"며 석가모니 탄생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굴에 참가한 고고학자들은 아소카왕이 서기 250년전 석가모니의 정확한 탄생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웠고 그 뒤 마야데비사원이 건립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야데비사원은 1939년 네팔 정부에서 건립한 것으로 내부에는 마야데비상과 싯타르타상이 모셔져 있으며 룸비니개발위원회에 의해 개발 복원중이다.

목탁 소리

불교방송 사장 선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불교방송 사장 선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진흥원 이사회가 사장후보로 추천한 정동호씨(전 국회의원) 사안은 정씨쪽이나 진흥원·방송국쪽 모두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특히 이달말경 열린 불교방송 결산 이사회를 앞두고 사장선임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선임의 결정 주체할 수 있는 진흥원 불교방송 조계총무원 총회 관계자

운회 주제로 한 영화 '은혜나무 침대' 개봉

윤희철을 빼대려 한 영화 '은혜나무 침대(감독 강제규)'가 오는 17일 개봉한다. 1천년전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에 빠진 궁중약사 종문과 공주 미단의 세련의 운회를 거치는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봉암사 시주 10억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불사와 관련된 수입지출 내역이 분사는 물론 총무원에도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봉암사측에서는 "91년 이후로 주자가 세차레나 바뀌어 당시 어떤 돈으로 어떻게 불사

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봉암사가 어떤 절인가.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회양산과의 종중(宗中)이다. 이번 겨울 안거만해도 가장 많은 비구스님들이 가부좌를 틀고 수행정진중이다.

'봉암사 시주' 건을 계기로 다 사금 삼분정음을 이어가기 위한 교계의 참회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성은 기자

불교방송 사장 선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진흥원 이사회가 사장후보로 추천한 정동호씨(전 국회의원) 사안은 정씨쪽이나 진흥원·방송국쪽 모두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특히 이달말경 열린 불교방송 결산 이사회를 앞두고 사장선임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선임의 결정 주체할 수 있는 진흥원 불교방송 조계총무원 총회 관계자

佛放 사장선임 새 국면

성명방송으로 그 파문이 범종교적 문제로 비화된 불방사태는 전문 상무 등 최고경영진이 공식 석으로 남아 해를 넘긴 지금도 사실상 정상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신임사원 선발, 대구, 청주 등

이끌 수 있는 경영인을 뽑아 전문적이며 소신있는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방안강구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불교방송의 사장직리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비어 있다. 지난해 2월 불교방송PD협의회

佛放 사장선임 새 국면

성명방송으로 그 파문이 범종교적 문제로 비화된 불방사태는 전문 상무 등 최고경영진이 공식 석으로 남아 해를 넘긴 지금도 사실상 정상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신임사원 선발, 대구, 청주 등

현안이 산적해 불교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불교방송 정상화는 사장선임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사장선임과 관련해 그 어느 주체도 앞서 나서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져 왔다. 차제에 단순한 사장선임 문제해결 뿐 아니라 불교방송의 공정한 보도기능 회복, 투명한 경영 및 인사권 확립, 이사회 구성의 권중성 극복등 불교방송의 근본적인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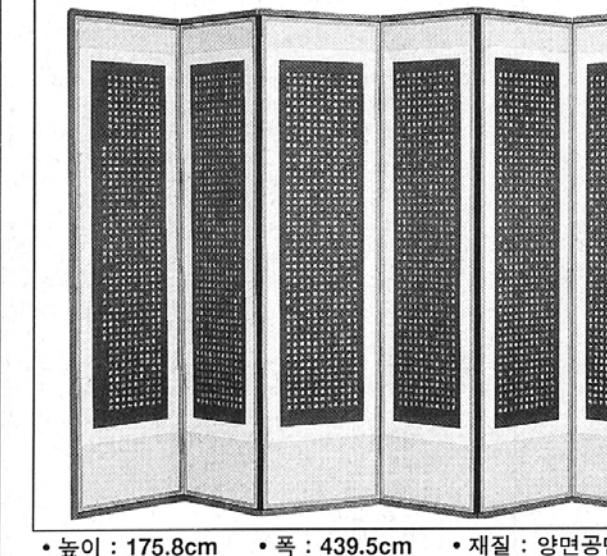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이은자 기자

설 명절을 맞아 불자님에게 한정수량 원가공급합니다

대덕스님 禪筆金書 금강경 10폭 병풍

일자일배의 정성으로 사경하신 스님의 공덕! 한자한자 끝없이 펼쳐진 5432자의 그 장엄함을 보시는 순간 환희심으로 가득합니다. 금강경의 영험함은 무병장수·업장소멸로 가정의 화를 멀하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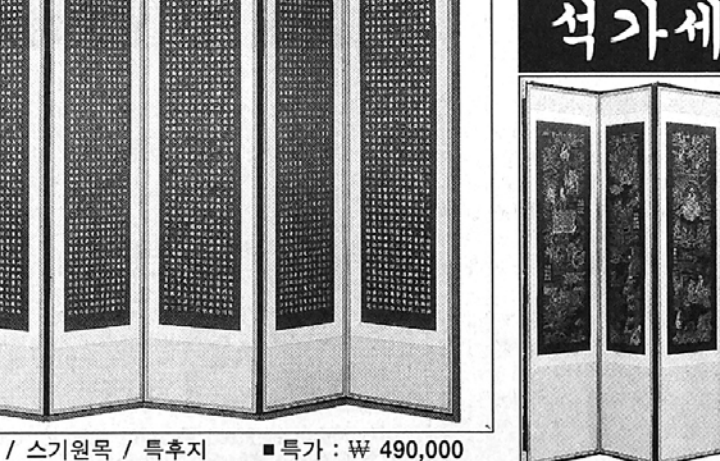


• 높이 : 175.8cm • 폭 : 439.5cm • 재질 : 양면공단 / 스키원목 / 특수지 • 특가 : ₩ 4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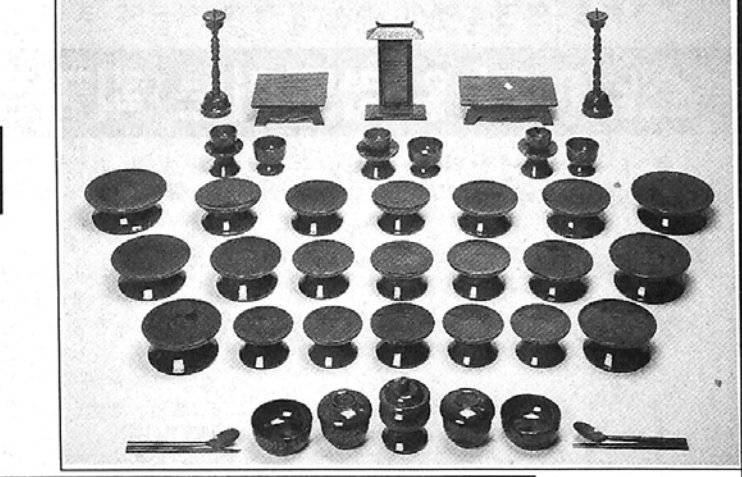
전통 木祭器

중공수입산 시중제품이 아닌 통목기로 한정수량 맞춤 조선택제입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물푸레나무로 트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 제품 수량 총 47종
• 특가 ₩ 320,000



• 높이 : 175.8cm • 폭 : 439.5cm • 재질 : 양면공단 / 스키원목 / 특수지 • 특가 : ₩ 490,000



석가세존일대기 8폭 병풍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성품병풍입니다.

■ 규격
• 높이 : 5자 5치(약 166cm)
• 폭 : 12자(약 363.6cm)
■ 재질
• 앞뒤양면공단
• 스키원목/특수지
■ 특가 ₩ 320,000

■ 문의처
三田佛事
서울 (02) 732-6095 / 735-5293